

한국야구 완전 적응 2년차 KIA 소크라테스, 내년 시즌도 기대

127경기 554타석 소화 타율 0.311 17홈런 77타점 12도루
7월 초순 안면 부상 후 주춤...인성 좋고 야구 열정 강해

KIA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32)가 2023시즌 어떤 활약을 할까? 소크라테스는 2022 새로운 외국인타자로 입단해 제몫을 했다. 127경기에 출전해 554타석을 소화하며 타율 3할1푼1리, 17홈런, 77타점, 83득점, 12도루, OPS .838, 득점권 타율 2할9푼6리를 기록했다. 소크라테스의 성적은 부상전후, 즉 전후반기로 나뉜다. 7월 초순 SSG 김광현의 투구에 안면을 맞았다. 코뼈 골절상을 입고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 전선에서 빠졌다. 전반기는 타율 3할3푼2리, 11홈런, 46타점,

54득점, OPS 0.924의 우등성적을 냈다. 개막 초반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느라 주춤했으나 영점이 잡히면서 필멸 날았다. 장타율이 5할4푼6리나 됐다. 나성범과 함께 타선을 이끈 일등공신이었다. "여권을 압수하자"는 관용구가 또 등장했다. 뼈 골절상을 치료하고 한 달만에 돌아왔으나 예전만 못했다. 51경기에서 타율 2할8푼6리, 6홈런, 31타점, 29득점을 기록했다. 경기수가 적으니 홈런도 줄었지만 OPS 0.738로 딱 떨어졌다. 장타율이 4할1푼9리에 그쳤고, 출루율도 3할7푼8리에서 3할1푼9로 하락했다.

돌아온 소크라테스는 부상 후유증으로 주춤하며 응집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구단은 시즌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소크라테스와 총액 11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내년 활약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한다면 중심타선에서 큰 힘이 된다. 3할 타율은 기본이자 20~25홈런, 90~100타점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인성이 좋고 야구에 대한 열정도 강하다. 또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한국을 좋아한다. 시즌을 마치고 부모님을 초대해 1주일 정도 국내 여행 함께 하는 등 효심도 깊다. 한국형 용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완전 적응을 마친 소크라테스의 내년 키워드로 '여권압수' 일 듯 하다. 이슬비기자



손흥민 트레이너, 축구협회 겨냥 "제 식구 챙기기 말라"

대표팀 선수 관리한 안덕수 "상식 밖의 일 발생...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시고 개선해야"



안덕수 인스타그램. (사진=안덕수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관리한 안덕수 트레이너가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 글을 올렸다. 안 트레이너는 7일 인스타그램에서 대표

팀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진이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1호에 모여 했던 271호 결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7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시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저 또한 프로축구팀에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트레이너는 또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안 트레이너는 손흥민의 개인트레이너로 런던에 상주하며 손흥민 몸을 관리해왔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을 위해 안 트레이너와 함께 카타르 도하로 건너왔다. 안 트레이너는 카타르 현지에서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서 머물렀고 숙소는 271호 추정된다. 객실료는 손흥민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로 글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손흥민을 포함해 다른 선수들은 축구협회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닌 271호에서 안 트레이너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된다.

승부차기 탈락 일본 "차고 싶은 사람 손 들어"

11 선수들 자신감 없는 듯 허망하게 탈락 알고 보니 먼저 찰 사람 손 드는 방식 적용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크로아티아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한 일본이 승부차기 키커를 고를 때 선수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지난 6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자누브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 크로아티아전에서 전후반과 연장전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으로 졌다. 일본 첫 주자 나시나 미나미노 타쿠미가 실축했다. 이어 미토마 카오루도 상대 골키퍼에 막혔다. 3번 주자 야사노 타쿠마가 골을 성공시켰지만 4번 키커인 주장 요시다 마야마저 실축했다. 일본 선수들은 자신감이 결여된 듯 약한 슈트로 일관하다 상대 골키퍼에 모두 걸리고 말았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키커 선정 방식에 패배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감독이 승부차기 키커를 정하고 미리 연습까지 시키지만 일본은 선수 자율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후 일본 선수단 인터뷰 등에 따르면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이 도쿄올림픽 8강 뉴질랜드전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키커 순서를 정할 때 선수들에게 맡기는 입후보제를 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선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모리야스 감독의 지도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은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차겠다고 나선 선수가 실축할 경우 그에 따른 비판이 한층 커진다는 것이다.



손흥민과 오현규(오른쪽)

'등번호 없던 27번째 태극전사' 오현규, 4년 뒤를 기약한다

최종명단 26명 못 들었지만 손흥민 안와골절 염두에 두고 카타르 동행

한국 축구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주장 손흥민(토트넘), 16강 진출을 이끈 포르투갈전 역전 결승공의 주인공 황희찬(울버햄튼), 특급 조커 이강인(마요르카), '코리아 넘버 나인' 조규성(전북) 등 선수단 26명이 하나로 뭉쳐 뚫어 만든 성과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27번째 태극전사' 오현규(21·수원)다. 오현규는 월드컵 최종명단(26명)에 승선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흑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카타르에 데려간 공격 대타 지원이다. 손흥민이 월드컵 개막을 약 2주 앞두고 안와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손흥민의 출전이 어려울 경우, 오현규가 그 자리를 메울 카드였다. 모두가 알 듯 손흥민은 조별리그 3경기, 브라질과 16강전까지 4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오현규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벤치에 앉을 수 없었다. 등번호도 없었다. 최종엔트리에 든 26명은 1~26번 사이에서 등번호를 정할 수 있다. 등번호 없는 유니폼을 입었지만 묵묵하게 훈련 파트너로 땀 흘리며 4년 뒤를 기약했다. 2019년 수원 삼성에 입단한 오현규는 2001년 생으로 어린 편이지만 방역의무도 이행했다. 이번 월드컵 직전 처음 A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11월11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K리그에서 보여준 가능성이 벤투 감독의 눈에 들었다. 오현규는 올 시즌 K리그1(1부)에서 13골(8도움)을 터뜨렸다. 오현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록 정식 엔트리도 아니고 그라운드도 밟지 못했지만 꿈의 무대인 월드컵에 한 일원으로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다"며 "함께 월드컵을 준비하고 땀 흘리는 순간이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다"고 했다.

LA 다저스, 내년FA 시장에 오타니 사려고 지갑 닫았다

트레이너 이적으로 전력 공백 생겼는데도 움직임 없어



자극력이라면 다른 팀에 밀리지 않는 LA 다저스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잠잠하다. 오히려 자유계약선수(FA)를 다른 팀에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년 FA 시장을 염

두에 두고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식을 전하는 MLB닷컴은 7일(한국시간)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설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LA 다저스가 전력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내년 FA로 풀리는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영입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LA 다저스는 올 시즌 MLB 30개팀 가운데 최고 승률을 올렸음에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 밀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즌이 끝나자마자 적지 않은 주전들이 FA로 풀렸다. 이 가운데 트레이너의 이적은 뼈아프다. 트레이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거액 몸값을 보장받고 건너갔다. 당장 유격수 자리에 구멍이 생겼다. 유격수 자리는 물론이고 중견수와 3루수 자리 보강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LA 다저스가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FA 시장에 카를로스 코레아와 젠더 보거츠 등 현역 최고

의 유격수들이 나와있음에도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게다가 LA 다저스는 지는 몇 년 동안 프린시스코 린도어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적지 않은 유격수 자원들이 시장에 풀렸음에도 이들을 잡지 않았다. 특히 LA 다저스는 코리 시거에 이어 트레이너까지 최고의 유격수를 모두 FA 시장에서 뺏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LA 다저스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 로젠설 기자의 설명이다. 로젠설 기자는 "현재 LA 다저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수는 바로 오타니"라며 "일단 내부 옵션으로 전력 누수를 막고 저스틴 터너와 케빈 키어마이어 등 비교적 몸값이 저렴한 FA와 단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로젠설 기자는 LA 다저스가 코레아에 대해서도 단기 계약으로만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수를 모두 겸비한 유격수들이 FA 시장에 나와있음에도 현재 LA 다저스는 오직 오타니에만 향해있다는 것이다. 결국 LA 다저스는 이번 FA 시장에서는 일단 철수했다가 내년 오타니에게 거절할 수 없는 대형 계약을 제시해 잡을 심산이다.

16강 8경기서 역대 월드컵 최다 28골 나왔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8개 경기에서 역대 최다 골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축구통계전문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번 대회 16강에서 나온 28골은 2라운드에 16강으로 확대된 1986년 이후 나온 최다골 기록이다.

신기록 수립에는 포르투갈과 스위스, 브라질과 한국이 기여했다. 포르투갈은 7일 열린 스위스전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브라질은 전날 한국전에서 4-1로 이겼다. 특히 포르투갈은 21세기 들어 월드컵 토너

먼트에서 6골 이상을 넣은 2번째 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르투갈이 넣은 6골은 2014 브라질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이 브라질을 7-1로 꺾은 이후 최다 득점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와 프랑스, 잉글랜드가 16강에서 3골씩을 넣었다. 네덜란드는 미국을 3-1로, 프랑스는 폴란드를 3-1로, 잉글랜드는 세네갈을 3-1로 각각 눌렀다.